

비만 여성 심장병 위험, 정상인의 6배

U 만여성은 정상체중의 여성에 비해 동맥 내의 작은 염증이 “소리 없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6배나 높으며 이는 비만으로 이미 높아진 심장병 위험을 더욱 촉진시킬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브리에대학의 마르올라인 비세르 박사는, 비만여성은 나중에 심장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맥 내 “미니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체중이 정상인 여성에 비해 6배, 남성은 2배 각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비세르 박사는 남녀간에 이처럼 큰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조사대상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비만의 정도가 더 크기는 했다고 밝혔다.

비만은 심장병을 예고하는 자동경고 신호이다. 살이 찐 사람일수록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심혈관 질환 요인들을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만이 또 하나의 심장병 요인인 동맥 내의 작고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다.

동맥 내의 이 미묘한 염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

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없었다. 일부 학자들은 박테리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비세르 박사는 지방세포는 인터류킨-6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비만이 동맥 내 염증의 주범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동맥 내의 “미니 염증”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혈중 C-반응성 단백질(CRP)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감기나 류머티스 관절염같은 염증질환에 걸리면 혈중 CRP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런 경우 말고 혈중 CRP가 혈액당당 0.2-1mg인 경우가 문제의 “미니 염증”에 해당한다.

비세르 박사는 비만 여성이 “미니 염증” 위험이 매우 높다는 데 놀랐다고 말하고 체중을 줄이면 동맥의 이 작은 염증이 사라지는지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72**

남녀 담배 피우는 이유 서로 다르다

U 자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여자는 행복한 기분일 때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미국 어바인 소재 캘리포니아대학의 랠프 델피노 박사가 미국 폐·흉부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조사분석 결과 나타났다.

델피노 박사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감정적인 이유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주로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은 행복한 기분일 때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피노 박사는 여성은 외부적인 이유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남성은 니코틴으로 불안과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델피노 박사는 남자 35명, 여자 24명에게 일기책을 주고 이틀동안 매시간마다 3번씩 그때 그때의 기분과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도록 했다.

기분과 흡연충동의 관계를 이처럼 리얼 타임으로 조사한 것은 델피노 박사가 처음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보고서들은 조사대상자들에게 어떤 기분일 때 담배가 피우고 싶었는지를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델피노 박사의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남녀 모두 불

안하거나 화가 날 때 담배를 찾는 경향이 있었지만 피로하고 슬플 때 담배생각이 나는 것은 남성뿐이었다.

특히 남자들은 화가 날 때 담배를 피우면 적대적인 기분이 다소 가라앉는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흡연 역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동과학자 브리짓트 가렛 박사는 “매우 새롭고 흥미로운” 연구결과라고 논평했다. 가렛 박사는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보고서들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은 니코틴 금단증상의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안도 이러한 금단증상의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해군 메디컬센터 연구팀은 이 회의에서 또 다른 연구발표를 통해 해병대 신병들을 대상으로 흡연 습관을 조사한 결과 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 거의 50%가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에 발표된 일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들에 비해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연합뉴스) **72**